

## 19장 거룩한 백성을 위한 율법들

19장에서는 종교적 생활과 도덕적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기록하였다. 10계명의 말씀을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가르쳤다.<sup>1)</sup> 특히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가르쳤다.

### 머리말 (19:1-2a)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열여섯 가지의 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a] “나는 여호와니라”[b]는 말로 끝난다. 16가지 명령은 다음의 구조를 지닌다.

a-a-a-a (1-10절)      b-b-b-b (11-18절)      b-a-a-b (19-31절)      a-b-b-a (32-37절)

따라서 거룩하신 여호와와의 성호를 중심으로 각 문단을 읽는 것이 좋다. 16개의 문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다(1-10, 11-18, 19-37절).

### 1. 하나님 사랑 (19:2-10)

#### 1) 거룩하라 (19:2b)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같이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선언하시고(19:2)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셨다. 19장에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호와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미를 지닌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종살이하던 백성이 여호와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구체적인 계명을 주신 것이다.

#### 2) 부모 경외와 안식일 준수 (19:3)

거룩함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첫째로 말씀하신 것은 부모에 대한 경외이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19:3).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는데(신 6:2) 여기에서는 ‘경외’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여야 한다. 친구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과 같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길이다.

‘부모’로 번역한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순서로 되어 있다. 아이들은 어머니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보다 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앞에 온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먼저는 ‘너의 어머니를 경외하라’ 하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어머니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경외’라는 말을 해산의 수고를 하는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수고를 하나님의 수고의 일부처럼 받아 주시는 것이다.

어머니의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의 수고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르는데, 이 순서는 불순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이들은 자기를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먹이고 씻기어 주신 어머니의 귀중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여서 어머니에게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자연히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데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19:3)을 주셨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길이다. 부모의 관심은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남자아이는 8일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이 아이가 언약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부모는 아이들을 잘 인도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할 것이다.

1) 구체적인 계명의 예들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마크 루커, 『레위기』, 315.

## 3) 우상 숭배 금지 (19:4)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신 후에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19:4)을 주셨다. 이미 금송아지를 부어 만든 잘못을 범한 그들에게 다시는 그러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19장에서는 5계명이 1계명, 2계명이나 4계명보다 먼저 나온다. 다소 의외의 순서이지만, 이것은 5계명의 독특한 위치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안식일과 우상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계명을 알 수 없으므로 ‘실용적인 이유’에서 5계명을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다.

## 4) 화목제 음식과 추수 규례 (19:5-10)

5-10절에서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화목제의 음식을 먹는 규례와 곡물을 더 거두지 않고 남겨두라는 말씀과 연결시킨다. 화목제의 음식을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려면 기뻐 받지 않는 경우를 피하면 된다. 그것은 사흘까지 화목제의 음식을 남겨두는 것이다. 자기 가족을 먹이려고 아껴두는 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화목제의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추수를 거둘 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한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화목제 제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고, 추수 때에 이삭도 남겨둘 수 없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이다.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작은 데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을 주셨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조금 남겨두는 것이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조금이 전부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보아스가 그의 밭에 남겨둔 이삭은 룯과 나오미가 먹고 살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는 오벳을 낳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은 이새이고, 그의 손자는 다윗이며,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였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일에도 쓰임을 받은 것이다.

## 2. 이웃 사랑 (19:11-18)

이 부분은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후렴구로 사용되었고, ‘형제’ ‘동포’(아미트) ‘백성’ ‘이웃’과 같은 네 가지 단어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sup>2)</sup>

|        |    |            |    |    |          |
|--------|----|------------|----|----|----------|
| 11-12절 |    | 동포 (번역 안됨) |    |    | 나는 여호와니라 |
| 13-14절 |    |            |    | 이웃 | 나는 여호와니라 |
| 15-16절 |    | 동포 (번역 안됨) | 백성 | 이웃 | 나는 여호와니라 |
| 17-18절 | 형제 | 동포         | 백성 | 이웃 | 나는 여호와니라 |

이 표를 보면 이웃을 나타내는 단어가 점차 늘어나면서 17-18절에서는 그 절정에 이른다. 이것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17-18절을 핵심으로 표현하는 서술 방식이다.

## 1) 도둑질과 속임과 거짓말과 거짓 맹세 (19:11-12)

이웃에 관한 계명은 도둑질에 관한 8계명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9계명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3계명이 나온다. 이렇게 세 계명이 일상생활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계명이 함께 나올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탐심을 품고 도둑질하면 자연히 거짓말을 하게 되고, 법정에서도 거짓 맹세할 가능성이 있다. 죄는 이렇게 다양하게 연루되어 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 처음부터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면,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다.

## 2) 착취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선대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 (19:13-14)

경제적인 문제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나보다 부한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품꾼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데에서도 탐욕이 표현될 수 있다. 일일 노동자가 품삯을 받지

2) 이 표는 고든 웬합, 『레위기』, 300쪽에서 가져온 것임.

않으면 그는 생존의 어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다(신 24:15).

특히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에게 그들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한 자를 보호할 근거로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에서 나타나야 한다.

### 3) 재판의 공정과 증상 금지 (19:15-16)

공의로 재판할 것을 명하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나 세력 있는 자의 편을 들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다. 재판에 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다.

또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말을 전파하지 말고, 이웃의 생명에 해가 될 수 있는 소문을 전파하지 말 것도 명령하였다.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의 생명을 해치는 악한 일이다. 그러한 일은 여호와께 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 4) 형제를 책선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19:17-18)

이 부분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로 끝난다. 형제 사랑을 미워한다는 부정적인 용어와 사랑한다는 긍정적인 용어로 가르쳤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는 이웃이 죄를 짓지 않도록 책선(責善)하는 것도 포함된다. 견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형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신령한 전쟁의 일부이다. ‘죄를 짊어진다’는 말은 형제를 견책하다가 일이 커져서 죄책을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sup>3)</sup> 또한 이 구절은 죄를 견책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죄가 사회에 퍼져서 함께 죄책을 짊어지게 될 경우도 포함한다.<sup>4)</sup>

보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동족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하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상대에게서 얻지 못하였을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보복하려는 데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18절은 37절로 구성된 19장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거룩함’과 ‘사랑’을 실제적으로 연결시킨다.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데로 인도한다. 이 구절은 율법의 강령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마 22:39-40. 참조 롬 13:9).

## 3. 각종 의무 (19:19-37)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혼합된 번식을 금하는 명령으로 이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교적인 환경에서 먹는 것이나 가정생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였다. 먹는 것과 생육하는 것에서 우상숭배적인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삶의 방식이 만연한 세상에서 거룩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1) 혼합된 번식을 하지 말고 5년에 과실을 먹으라 (19:19-25)

식물이나 동물들을 혼합하여 번식하지 말고, 심지어 옷을 만들 때에도 두 종류로 직조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생활에서 경계가 있음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달리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다(19:19).

속량되지 못하고 정혼한 여종과 간음한 경우를 다룬다. 일반적으로는 간음한 경우에 사형에 처하지만신

3) 노부요시 키우치, 『레위기』, 462-463, 475.

4) NIV, NRSV, NEB, JB 등이 이러한 의미로 번역하였다. 주석가들 중에서는 B. A. Levine, *Leviticus*, 129-30; J. E. Hartley, *Leviticus*, 303 등이 이러한 의견을 취한다.

22:23-27), 그 여인이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다. 그 남자는 중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바쳤다. 속건제 수양으로 그가 그 여인에게 입힌 손해를 하나님 앞에서 보상하도록 하였다(19:20-22).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고 4년에 얻은 과실을 거룩한 것으로 여겨서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5년에 얻은 과일은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 2)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라 (19:26-28)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이 짐을 치지 말라는 규정과 함께 나온다. 이것은 이교도의 제사와 연결된다. 장래의 일을 알리고 주술을 행하면서 그들은 동물의 피를 먹기도 하였던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우림과 둠밈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갔다.

이교도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बे거나 자기 몸에 무늬를 새기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체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의 몸은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 3) 신전 창기가 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19:29-30)

자기의 딸이 기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신전 창기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다. 신전 매춘은 그의 딸을 더럽히게 하는 일이고, 또한 그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 된다.

신전 창기가 되지 말라고 명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고 명하신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

## 4)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지 마라 (19:31)

26절에서는 점치는 일을 금하였는데 31절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한다는 일을 금한다. 접신하는 자를 믿거나 따르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다.

## 5) 노인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19:32)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멀리할 것을 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머리가 센 사람 앞에서는 일어나서 존경을 표시하라고 하였다. 젊은이가 보기에는 노인이 힘도 없고 시대가 뒤진 것처럼 보이지만,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무너진 것과 같다(참조 사 3:5). 노인에 대한 공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다른 면이다. 노인의 권위는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파생된다.

## 6) 타국인을 선대하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19:33-34)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19:18)는 말씀은 ‘나그네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19:34)는 말씀과 짝을 이룬다. 그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나그네의 심정으로 나그네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과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 7)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공평한 계량을 사용하라 (19:35-36)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법을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그들은 공평한 저울추와 계량형을 사용해야 되었다.

## 8) 내 모든 규례를 행하라 (19:37)

결론적으로 여호와와 모든 규례와 모든 법을 지키도록 권고를 받는다. 위의 계명은 모두 여호와와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두 지켜야 한다.

## 묵상과 실천:

### 여호와와의 거룩하심과 율법을 지키는 것

#### 1.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율법

19장의 계명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는 선언에 모두 걸린다. 부모를 공경하거나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일,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이 모두 여호와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미를 지닌다. 19장의 계명이 모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혹은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로 구분이 되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여호와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긴밀히 연결됨을 표시한다.

여호와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분리하면, 쉽게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에 대한 반발로 반법주의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율법을 주신 뜻을 모르는 일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율법 준수 혹은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은 역시 일면적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바른 모습이다.

#### 2. 성도의 거룩함

19장은 여호와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것을 명하셨는데, 음식과 혼인과 가정의 면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셨다. 사람으로서는 이를 수 없는 그 거룩함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주셨고, 또한 사람으로서는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어 주셨다. 그분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히 13:12).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히 2:10-11). 성자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하도록 하려 함이다. 레위기 19장은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구체적인 현실에서 생생하게 가르쳐 준다.

레위기의 계명은 구약 성도들의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을 나타낸 것이므로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오늘날도 동일하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된다(벧전 1:16).

#### 3.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웃 사랑

레위기 19장은 37개 절인데, 이웃 사랑에 관한 18절이 그 중앙에 위치한다. 여호와와의 거룩하심을 선언하면서 시작한 19장은 중앙에 이웃 사랑을 둔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데에 있다.

18절의 이웃 사랑은 17절에서 자기 동료를 견책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죄책을 짊어지는 일은 피하는 것과 연결된다. 친구의 죄를 견책하다가 더 큰 싸움으로 발전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깨달음을 친구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없다. 그는 죄와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견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뿐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

히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던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34절) 34절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18절)는 말씀과 짝을 이룬다. 자기 자신도 애굽 땅에서 타국인이었음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웃 사랑도 가능하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웃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 4.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19:2; 벧전 1:15-16)고 하신다.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능하다(19:3-4, 37). 그 계명의 핵심에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다(19:18).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와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19:34).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요일 4:19).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 그분의 거룩함은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거룩함’이다.

#### 19장 익힘 문제

1.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할 근거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
2.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면서 특히 말씀해 주신 십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3, 4절)
3. 다음 말씀들은 십계명중의 어떤 계명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1)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11절)  
 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12절)  
 3)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29절)
4. 이스라엘에서 밭 모퉁이의 곡물, 떨어진 이삭, 포도원에 남겨진 포도 등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9, 10절)
5. 백성을 재판할 때 누구의 편을 들지 말고 누구를 두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15절)
6.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17절)
7.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삼년 동안 그 땅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
8. 이스라엘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32절)
9.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거하는 타국인을 사랑해야 할 근거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34절)
10. 거룩하라고 선언하시면서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실 때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 4, 10, 14, 16, 18, 25, 28, 30, 31, 32, 36, 37절)